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지다’구문의 영어번역문 유형  
및 기능문법적 설명



영어교육전공

손혜숙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지다’구문의 영어번역문 유형  
및 기능문법적 설명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손혜숙

손혜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 심 언어학박사 한지원 (인)

위 원 문학박사 윤희수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은일 (인)

#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5
제 3장 번역구문의 유형 및 기능 문법적 설명	8
3.1 타동사+지다 구문	8
3.1.1. 수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8
3.1.2. 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11
3.1.3. 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13
3.1.4. 양태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15
3.2 자동사+지다 구문	16
3.2.1. 수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16
3.2.2. 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17
3.3 형용사+지다 구문	19
3.3.1. 수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19
3.3.2. 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20
3.3.3. 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21
3.3.4. 계사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22
제 4장 결론	30

병렬 언어 자료 .....32

참고문헌 .....33



A Functional Analysis of the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ita'  
constructions.

Son, Hye-so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some specific types of English translations of Korean 'cita' constructions and to provide functional explanations for each type of them. It is a usual way to translate 'cita' constructions to English passives. However, it hasn't been proved how frequently that kind of translation happens and what cause this practice. In this paper, 98 Korean 'cita' constructions are analyzed from Shin Kyung-sook's (2008) *Please Look After My Mom* and their English version. The Korean 'cita' constructions are shown to be translated into adjectives (48%), transitives (29%), and intransitives (23%). This study accounts for the subtypes in terms of functional concepts such as topicality, agentitivity, and lexicalization.

## 제 1 장 서 론

학교 현장에서 ‘지다’ 구문을 영어로 번역할 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니 운동장이 넓어졌다.’, ‘차가 진흙에 빠졌다.’, ‘가을이 오는 것이 느껴진다.’ 표현을 한국어로 ‘지다’구문으로 말해지듯 영어로 수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만약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은 제일 먼저 수동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먼저 고민할 것이라 추측된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한국어 수동 구문이라 하더라도 한국어와 영어는 의미적, 구문적 성격이나 사용 범위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아서 이러한 것은 번역 역할 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지다’ 구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들이다.

- (1) a. 교자상들이 다리를 접은 채 올려져 있다. (엄마, p. 186)  
b. Squat tables, their legs folded, are stacked on top.  
(Mom, p. 179) (수동구문)
- (2) a. 마당에 기척이 느껴져 그가 방 안에서 창으로 밖을 내다봤다.  
(엄마, p. 126)  
b. That night, past midnight, he heard something in the yard and looked out the window. (Mom, p. 119) (타동사구문)
- (3) a. 너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엄마의 귀는 토끼처럼 쫑긋 세워져 있었다. (엄마, p. 22)

- b. Your mom's ears would be coked like a rabbit's, trying not to miss a single word. (Mom, p. 15) (자동사구문)
- (4) a. 그리두 여자는 어찌어찌 지 몸 챙기며 살터마는 남자는 혼자 남으른 영 추레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엄마, p. 163)
- b. A woman can somehow take care of herself and live, but a man becomes pathetic if he lives alone. (Mom, p. 157)  
(계사(copular) 동사구문)
- (5) a. 아무래도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랑 닮아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p. 252)
- b. I do think that a house starts resembling the people who live there. (Mom, p.244) (양태동사구문)

위의 예와 같이 ‘지다’구문은 번역될 때 수동 구문뿐만 아니라 능동 구문, 타동사 구문, 자동사 구문, 양태동사 구문, 계사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와 같이 ‘지다’ 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성격과 사용범위가 다르므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다’ 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여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번역상 일어나는 문제점을 연구문제로 삼으려고 한다. 즉 이러한 ‘지다’ 구문의 일치 및 불일치 현상이 실제 문학 작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전 연구를 참조하여 다른 유형이 없는지를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유형

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 이며 각 유형이 어떤 기능으로 부호화하고 있는지를 기능문법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김은일(2007)에서 논의되었듯이, 한국어에서 수동의 형태가 영어에서도 반드시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양쪽 언어가 부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인 영어학습자는 번역이나 작문시 ‘지다’구문과 관련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영 병렬언어자료(parallel corpus)를 중심으로 해석과 함께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고 동사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영 병렬언어자료는 한국문학작품인 신경숙(2008)의 ‘엄마를 부탁해’와 그에 대응하는 영어번역본 Chi-Young Kim의 ‘Please Look After Mom’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지다’구문의 유형 규정 및 연구에 필요한 관련 이론들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지다’구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 기능 문법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떤 유형으로 번역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이익섭 외 (1997) 에 의하면 ‘지다’구문은 수동의 의미가 있다.

(6) a. 정화는 화가 나서 종이를 찢었다.

b. 종이는 정화에 의해 찢어졌다.

첫째, 위 능동문 (6)에서 목적어 피동작주(patient) ‘종이’는 주어로 격상되었고, 능동문에서 주어인 행위자(agent) ‘정화’는 ‘지다’구문에서 격하(demote)되어 조사 ‘-에’ 표시로 나타났다. Givón(1993, 2001)에 의하면, 능동구문에서는 행위자(agent)가 비행위자 (non-agent)에 비해 주제적(topical)이어서 주어자리에 나타나지만, 수동구문의 경우 담화문맥에서 행위자가 다른 비행위자 참여자에 비해 주제적이지 못해 행위자 비초점화가 이루어진다. 이 때 행위자는 탈락(deletion)되거나 주어자리 이하로 격하(demotion)되고, 가장 주제적인 비행위자는 주어자리로 격상(promote)한다.

둘째, 우인혜(1993)에 의하면, ‘지다’구문은 기동성(inchoative)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Hornby (1980)에서 ‘기동’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상태변화나 전개를 나타낸다.

(7) a. 나뭇잎이 붉다.

b. 가을이 되니 나뭇잎이 붉어졌다.

(7a)에서 형용사 ‘붉다’는 상태의 의미이지만, ‘지다’구문 (7b)의 경우 상태의 변화인 기동성 개념이다. 우인혜(1993)에 의하면 기동성의 의미란 ‘한 상태의 시작 또는 다른 상태로의 변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과 같이 우인혜(1993)는 기동성(inchoative)적 기능은 선행 용언이 형용사일 때 뿐 아니라, 자동사나 타동사일 때도 그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8) a. 나는 여기에 자주 안 와졌다. (자동사)

b. 그 금덩어리는 땅 깊숙이 묻히어졌다. (타동사)

위의 (8a)는 ‘오다+지다’로 쓰여 기동의 의미가 있으며 (8b)에서도 ‘묻다+히+지다’로 쓰여 기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이기동(1978)은 ‘지다’구문이 ‘비자동과정’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기동(1978)에 의하면 ‘비자동과정’의 의미에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며, 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 예상을 사실이 넘어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9) a. 창수는 퇴원 후 하루 만에 걸었다.

b. 창수는 퇴원 후 하루 만에 걸어졌다.

(10) a. 그들은 자동차에 탔다.

b. 그들은 자동차에 다 타졌다.

(9)에서 창수가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걸었다는 것은 위의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10)에서도 ‘지다’구문은 차를 타는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뜻이 있다. 즉 그들이 자동차에 다 타졌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최현배(1961)에 의하면 ‘지다’구문은 ‘절로 됨’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절로 된다’는 것은 사건이 저절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행위자의 의지가 아느라 사건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의도성’(non-volitional)과 같다고 할 수 있다(김은일 2002, 2005; 김은일, 정영창 2006). 이러한 ‘절로 됨’의 의미를 Kim(199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관점에서의 ‘비의도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면, ‘지다’구문은 ‘수동’, ‘기동성’, ‘비자동화과정’ ‘비의도성’의 기능이다. ‘수동’기능은 행위자의 주제성에 따라 주제성이 높은 것을 주어자리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동성’은 상태의 변화, ‘비자동화과정’은 행위자가 사건을 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했음, ‘비의도성’은 행위자의 의지가 아니라 행위가 비의도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알아보고 분석하겠다.

## 제 3 장 번역구문의 유형 및 기능 문법적 설명

‘지다’구문이 영어번역문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번역되는지를 한영 병렬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하여 ‘지다’구문이 어떻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기능문법적인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다’구문이 단어의 품사에 따라 의미가 다르므로 품사별로 알아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지다’구문과 영어동사가 꼭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의역된 문장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동구문, 자동사구문, 타동사구문, 형용사구문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한영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지다’구문 중에서 타동사 28개, 자동사13개, 형용사 43개로 한다.

### 3.1 타동사+지다구문

#### 3.1.1 수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타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 중에서 영어의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 10개, 타동사구문이 5개, 자동사구문이 8개였다. 먼저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11) a. 너는 그 우물이 메워지는 걸 보지 못했다. (엄마, p. 29)

b. You weren't there when the well was filled in. (Mom, p. 29)

위의 예문에서는 피동작주 ‘우물’이 주인공이고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므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담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인공인 ‘우물’이 주어로 격상되어 구문이 사용되었다. 영어에서도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이 선택된다(Givón 1993). 그러므로 영어번역문에서도 주제성이 높은 피동작주 ‘the well’이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즉, ‘지다’구문에서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위의 예문처럼 피동작주가 담화문맥에서 행위자보다 더 주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김은일, 2007).

아래예문은 주제성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예들이다.

- (12) a. 집집마다 상수도가 설치되면서 우물은 자연스럽게 메워졌으나 그 우물을 기억하는 너는 작은 문으로 들어서기 전에 문득 우물이 있던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엄마, p. 28)
- b. The well was filled in when modern plumbing was installed in every house, but you stood on that spot before entering the house. (Mom, p. 21)

(12)에서는 우물을 메우는 행위자는 나타나있지 않다. 따라서 담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제성에 따라 ‘우물’을 주어로 해서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주제성과 관련하여 행위자 비초점화가 이루어지는 예문이다.

- (13). a. 도미와 칼과 호박이 밀쳐져 있고 낡은 대바구니엔 고만고만하게 썰린 호박이 담겨 있었다. (Mom, p. 30)
- b. A chopping board, a knife, and zucchini were pushed to the side, and small slices of zucchini were cradled in a worn bamboo basket. (Mom. p. 22)

(13)에서 행위자는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전혀 주제적이지 않은 행위자는 주제성 비초점화가 이루어진다. Givón(1993, 2001)에 의하면 비초점화가 이루어지는 동기를 주제성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수동구문의 경우 담화문 맥상 행위자가 다른 비행위자 참여자에 비해 주제적이지 못해 행위자 비초점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제성으로 인해 행위자가 비초점화되는 것을 주제성 비초점화라고 한다. 주제성 비초점화가 이루어질 때 행위자는 통사적으로 탈락(deletion)되거나 주어 이외의 자리로 격하(demotion)된다.

또한 수동구문은 행위자의 '비의도성'과도 관련이 있다.

- (14) a. 바닷바람이 그 부엌문을 열매나 여닫았는지 나무문은 반은 부서져 있습니다. (엄마, p. 224)  
b. The ocean wind had banged the wooden door open and shut so many times that it was half shattered. (Mom, p. 216)

(14)에서는 나무문이 부서져있다는 것은 바닷바람으로 인하여 부엌문이 저절로 부서졌다는 의미이므로 비의도성과 관련되어 수동으로 번역되었다. 비의도성을 부호화하는 '지다'구문도 주제성에 따라 행위자는 탈락되고 피동작주 '오토바이'가 주어가 된 수동구문이 사용되었다.

아래 예문들은 행위자가 사람이고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 (15) a. 엄마는, 지하철 서울역 구내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엄마는, 꿈처럼 사라졌다. (엄마, p. 84)  
b. Mom, who had been left behind at Seoul Station, disappeared as

if she were a figment of a dream. (Mom, p.77)

위 예문에서는 피동작주 엄마가 주인공이고 남겨진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담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위자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인공인 ‘엄마’가 주어로 격상된 구문을 사용한 것이다.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

- (16) a. 지난 여름 지하철 서울역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내겐 세 살 적 일만 기억났네. (엄마, p. 253)
- b. Last summer, when I was left behind at Seoul Station, I could only remember things from when I was three years old.  
(Mom, p. 245)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담화문맥은 피동작주 ‘나’가 주인공이고 남겨지게 한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따라서 담화에서 중요하진 않은 행위자는 문장에서 탈락되고 주인공인 ‘나’가 주어로 격상된 구문을 사용한 것이다. 영어에서도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능동구문과 수동구문이 선택된다(Givón 1993). 따라서 영어번역문에서도 주제성이 높은 ‘I’가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으로 나타났다. 즉 ‘지다’구문은 수동구문으로 번역될 때는 피동작주가 담화문맥에서 행위자보다 더 주제적인 경우다.

### 3.1.2 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번에는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김은일(2005)에 따르면 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주제성’과 ‘비의도성’과 관계가 있다. 그와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자.

- (17) a. 엄마가 늘 머리에 쓰고 다니던 수건에서는 진한 땀냄새가 맡아졌  
다. (엄마, p. 50)
- b. You should smell the intense stink of sweat on Mom’s towel.  
(Mom, p. 42)

(17a)에서 행위자가 ‘땀냄새를 맡았다’라는 능동문을 사용하기 보다는 ‘수건에서는 진한 땀냄새가 맡아졌다’라는 ‘지다’구문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행위자보다 피동작주인 ‘수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김은일(2005)에 의하면 피동작주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행위자를 비초점화하는 것을 ‘감정이입 비초점화’(empathy defocusing)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감정이입 비초점화’를 부호할 문법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제성에 따라 담화문맥에서 더 주제적인 ‘You’를 주어로 해서 능동문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므로 ‘감정이입 비초점화’의 기능을 가진 ‘지다’구문은 주제성에 따라 번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행위자의 ‘비의도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지다’구문이 사용된 예들을 보자.

- (18) a. 네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니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의젓  
해지는 기분이었는지. (엄마, p. 94)
- b. When I pinned your name and a handkerchief on your chest, I  
felt so grown up. (Mom, p. 87)

위 예는 ‘지다’구문은 행위자인 ‘나’가 느끼는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비의도적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은일(2005)에서 말하듯이 영어는 이런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할 문법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제성에 따라 행위자인 ‘I’가 주어인 능동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 3.1.3 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는 행위자의 ‘비의도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지다’구문이 사용된다.

- (19) a. 모든 일은, 특히 나쁜 일은 발생하고 나면 되짚어지는 게 있다.  
(엄마, p. 18)
- b. There are moments one revisits after something happens in which one thinks, I shouldn't have done that. (Mom, p. 11)
- (20) a. 널리리 맘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야 집자도서관에 들어서서 그들과 헤어질 때까지 너를 짓누르던 긴장이 풀어졌다. (엄마, p. 47)
- b. As soon as you heard the words “Mola mola,” the tension you had been feeling inside the library dissipated. (Mom, p. 39)

(19)에서 ‘되짚다’라는 표현대신에 ‘되짚어지다’라고 사용된 이유는 이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즉, 나쁜 일이 저절로 되짚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비의도성은 영어에는 부호화하는 문법장치가 없다. 즉 영어에는 행위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하는 문법장치가 없어서 행위자의 개입없이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동

사가 사용되었다. (20a)에서 ‘긴장을 풀다’대신 ‘긴장이 풀어졌다’라고 번역된 이유는 행위자인 ‘너’보다는 짓누르던 ‘긴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즉 영어는 주제성에 따라 주제적인 행위자가 주어가 되어 자동사구문으로 나타났다.

아래 (25) 예문은 ‘비자동화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지다’구문이 사용된 예를 보자.

- (21) a. 엄마의 보통이에선 신문지에 싸고 비닐에 싸고 때로는 호박잎에 싸  
것들이 수두룩이 쏟아졌다. (엄마, p. 127)
- b. She'd take off the suit she'd worn to the wedding; food  
wrapped in newspaper or plastic or squash leaves would tumble  
out of her bundles. (Mom, p. 120)

(21)에서는 호박잎에 싸 것들이 수두룩이 쏟아진 것은 행위자가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제(control)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비자동화과정’이란 결국 행위자의 통제성(controllability)을 비초점화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은일(2007)에 따르면 행위자의 통제성은 행위자의 특성들 중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위자의 통제성 비초점화는 행위자의 행위자성 비초점화로 간주할 수 있다. 즉 행위자성 비초점화를 부호화할 수 있는 영어 문법장치는 타동-자동 교체를 보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아래 예문들도 행위자가 사건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비자동화과정’을 보여 준다.

- (22) a.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울 수도  
 없던 분노인지 뭘지 모를 치받침으로 인해 눈물이 견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엄마, p. 169)
- b. You couldn't scream or cry in front of your sons or daughters  
 or daughters-in-law, but now, because of the rage or whatever it  
 is, tears are pouring down your face, unstoppable. (Mom, p. 162)
- (23) a. 이 동네에서 형수의 흘태가 가장 오래돼서..... 세워도 잘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 p. 185)
- b. Your brusher is the oldest in the village – it doesn't look like  
 it can even stand on its own. (Mom, p. 178)

(22)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를 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통제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도 ‘비자동화과정’을  
 부호화하는 것으로 자동사로 번역되었다. (23a)에서도 ‘지다’구문은 ‘비자동화  
 과정’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세워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  
 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암시하여 행위자의 통제성을 비초점  
 화하였다.

### 3.1.4 양태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다음 예문은 행위자의 개입없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자동사가  
 변화의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동사(modality verb) ‘start’와 함께 사  
 용되었다.

- (24) a. 엄마를 잃어버린 뒤 날이 갈수록 그는 불쑥불쑥 아내에게 화를 내는

일이 찾아졌다. (엄마, p. 133)

- b. Ever since Mom disappeared, he has started to take things out on everyone. (Mom, p. 127)

(24)에서는 엄마를 잃어버린 뒤, 그 후로 상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기동성의 의미를 지니며, 'start'로 시작하는 양태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타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이 수동구문, 타동사구문, 자동사구문, 양태동사구문으로 번역된 표현들을 분석해보았다.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지다'구문이 피동작주가 행위자에 비해 주제성이 더 높은 경우와 비의도성을 나타내고,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감정이입 비초점화나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하는 경우로 주제성에 따라 번역된 예를 살펴보고,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을 때는 행위자의 비의도성을 부호화하는 경우와 비자동화과정에서 자동사가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 3.2 자동사+지다구문

### 3.2.1 수동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

자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은 모두 [자동사 어근 + 사역접미사]에 '지다'가 결합한 구문이다. [자동사 어근 + 사역접미사]은 목적어를 취하므로 타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과 결국 같다고 할 수 있다. 한영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된 13개중에서 영어의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 1개, 타동사 구문이 2개, 자동사 구문이 10개 이다. 그러면 먼저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25) a. 엄마는, 지하철 서울역 구내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엄마는, 꿈처럼 사라졌다. (엄마, p. 84)

b. Mom, who had been left behind at Seoul Station, disappeared as if she were a figment of a dream. (Mom, p.77)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담화문맥은 피동작주 ‘엄마’가 주인공이고 남겨지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담화에서 중요하지 않은 행위지는 탈락되고 주인공인 ‘엄마’가 주어로 격상되고, 영어에서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피동작주가 주어인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다음에도 주제성으로 인해 수동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다.

(26) a. 엄마의 입술은 벌어져 있고 어찌나 이마를 강하게 찌푸렸는지 미간에 굵은 철사 같은 주름이 저 있었다. (엄마, p. 30)

b. Her lips were parted, and she was frowning so intently that her face was gnarled with deep wrinkles. (Mom, p. 23)

‘벌다’라는 자동사는 ‘지다’구문과 함께 쓰여 피동작주 ‘her lips’가 행위자인 ‘she’보다 더 주제적이다. 따라서 주제성이 높은 피동작주가 주어로 하여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 3.2.2 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제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는 비의도성

으로 설명된다.

(27) a.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이름을 쓰고 엄마이름을 쓰고 드디어 더듬더듬 책을 펼쳐놓고 읽게 되었을 때 박하꽃처럼 되던 엄마의 얼굴이 내가 읽을 수 없는 점자 위로 겹쳐졌다. (엄마, p. 49)

b. When you learned to write your name and Mom's name and read books hesitantly before enrolling in school, your mom's face bloomed like a mint flower. That face overlapped with the Braille you couldn't read. (Mom, p. 41)

위의 예에서 '지다'구문은 행위자의 행위가 행위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의도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 예문 (28)에서는 동사 '굳어지다'의 주어는 '고모의 얼굴'이지만 (28b)에서는 '고모의 얼굴'대신에 'Father's sister'가 주어로 나타났다.

(28) a. 밭에서 내려와 고모에게 이러저러한 사람하고 온종일 밭을 같이 팠다고 하니 고모의 얼굴이 굳어지며 얼굴의 생김을 묻더니 그이는 오래전 그 밭주인으로 그 밭에서 김을 매다가 일사병으로 죽은 이라 하더라, 했다. (엄마, p. 65)

b. When she came back from the field and told Father's sister that she had weeded with the stranger, Father's sister stiffened and asked what he looked like. "That used to be the owner of that field." (Mom, p. 57)

(28)에서도 'Father's sister'가 주어로 나타난 것도 주제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모의 얼굴’은 선행문맥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후행문맥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전혀 주제적이지 않다. 하지만 ‘Father’s sister’는 (28)에서 선행문맥과 후행문맥에서 주인공으로 매우 주제적이다. 따라서 주제성이 높은 행위자 ‘Father’s sister’가 주어인 구문으로 번역된 것이다.

### 3.3 형용사+지다 구문

형용사와 결합하는 ‘지다’구문은 모두 43개가 발견 되었는데 이들 중에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것이 6개, 자동사구문이 4개, 타동사구문이 6개, 계사동사구문이 28개이다.

#### 3.3.1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

먼저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인간행위자가 부각되어 번역된 예문이다.

(29) a. 마음이 야릇해졌다. (엄마, p. 28)

b. You were overwhelmed with nostalgia. (Mom, 22)

여기서는 인간 참여자 ‘You’가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즉 ‘마음’보다는 인간참여자 ‘You’가 부각되어 막연한 행위자 ‘You’가 더 주제적이므로 피동작주가 주어가 되어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아래예문은 ‘멍하다’라는 형용사를 타동사 ‘stun’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30) a. 너는 순간 멍해졌다. (엄마, p. 43)

b. You were stunned. (Mom, p. 36)

(30)은 참여자의 주제성에 따라 ‘You’가 주어가 되는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아래 예문 (31)은 ‘붉다’라는 형용사를 수동구문으로 번역하였다.

(31) a. 생맥주 두잔인데 빈속에 마셔서인지 여동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p. 131)

b. Her face is flushed from drinking on an empty stomach. (Mom, p. 125)

즉, ‘붉다’라는 형용사를 주제성에 따라 수동구문으로 번역하였다. 피동작주인 ‘her face’는 더 주제적이므로 피동작주가 주어가 된 구문이 되었다.

### 3.3.2 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제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보자. [형용사+지다]가 타동사로 번역된 것은 대부분 전형적으로 사람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라는 점이다.

(32) a.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리던 아내의 잔소리가 이리 그리워질줄은, (엄마, p. 152)

b. You didn't know that one day you would miss your wife's nagging, which used to go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Mom, p. 144)

[형용사+지다]가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어 ‘miss’는 전형적으로 사람을 주어  
로 취하고 여기서도 주제성에 따라 인간행위자가 부각되어 그리워진다는 마  
음이 아니라 ‘You’가 주어로 번역되었다.

### 3.3.3 자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제 자동사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33) a. 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귀밀이 붉어졌다.  
(엄마, p. 11)
- b. You blush, as if you were caught doing something you  
shouldn't. (Mom, p. 4)

자동사는 행위자가 하나이므로 그 행위자가 바로 주어가 된다. 김은일  
(2007)에 따르면 자동사는 타동사와 결합한 ‘지다’구문이 자동사구문으로 번  
역된 경우와는 다르며, 즉 행위자성 비초점화와 같은 기능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 (34) a. 너의 엄마가 어느 날 시장통에서 붉은 홍어를 사와서 우물에 철버덕  
내려놓으면 제사가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엄마, p. 55)
- b. When your mom went to the market and bought a red skate  
and dropped it next to the well, this meant that an ancestral  
rite was approaching. (Mom, p. 47)

위 (34)에서도 참여자는 하나이므로 그 참여자가 자동적으로 주어가 되었으

며 ‘가까워’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시간이 점점 근접해오고 있다는 의미로 진행형으로 번역되었다.

아래와 같이 영어번역문에서 한국어와 달리 소유형용사가 사용된 경우가 있다.

(35) a.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너는 마음이 떡떡해졌다. (엄마, p. 77)

b. Your heart aches as you listen to him. (Mom, p. 69)

위 예문에서 ‘마음’이 ‘your heart’로 번역되었다. Ikegami(1991)는 (46b)와 같은 소유격 대명사의 사용역시 인간행위자를 부각시키는 언어유형의 한 특성이라고 주장한다. Ikegami(1991: 301)에 의하면, 독일인 화자들이 영어를 할 때 “I raised the hand but the teacher did not see it and so did not call upon me.” 와 같이 문장을 발화하는 상황에서 영어 원어민 화자들은 ‘the hand’ 대신에 ‘my hand’를 사용한다. 여기서도 더 주제적인 행위자가 자동적으로 주어가 된다.

### 3.3.4 계사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계사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겠다. 계사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모두 한국어의 형용사가 영어의 해당 형용사로 번역되고 계사동사만 상황의미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었다. 본 연구의 언어자료에서 발견된 계사동사는 ‘be, become, grow, turn, get, come, feel’ 7개다.

‘be’를 제외한 나머지 계사동사는 모두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 계사동사 (resulting copular) 이다. (Quirk *et al.* 1972: 821)

먼저, 계사동사 'be'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36) a. 고통에 짓눌린 채 엄마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p. 31)  
b. Weighted with pain, her face was a miserable knot. (Mom, p. 24)

위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계사동사 'be'는 '상태의 변화'보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고통에 짓눌린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상태를 나타낸다.

다음 (37)은 접속사 when 과 함께 과거의 마음상태를 강조하는 것을 암시해준다.

- (37) a. 간혹 정신이 맑아질 때면 너와 네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 (엄마, p. 223)  
b. Sometimes when my mind was clear I thought of the things I had to do for you and your children. (Mom, p. 215)

하지만 아래예문과 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 외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다.

- (38) a. 깨지는 것은 모두 깨뜨려 땅에 묻었으니. (엄마, p. 242)  
b. I broke everything that was breakable and buried it all. (Mom, p. 234)

예문 (38)번에서는 '상태'보다는 가능성을 강조하여 형용사+able의 형태로 번

역되었다.

계사동사 'become'은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결과보다는 과정(process)를 강조하며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는 사람의 의식 혹은 깨달음을 나타낸다. (Biber *et al.* 1999: 443-4).

- (39) a. 순간 순간 모면하듯 봉합해온 일들이 툭툭 불거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엄마, p. 15)
- b. The things that had been suppressed, that had been carefully avoided moment by moment, became bloated, and finally you all yelled and smoked and banged out the door in a rage. (Mom, p. 9)

(39)에서는 봉합해온 일들이 불거졌다는 과정을 나타내고, 그 뒤에는 결과가 뒤따른다. 그래서 'become bloated'으로 번역되었다.

계사동사 'grow'는 형용사와 함께 변화의 과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Biber *et al.* 1999: 445).

- (40) a. 아무 대답이 없자 흥태희의 얼굴이 조심스러워졌다. (엄마, p. 134)
- b. When there's no response, Tae-hee's expression grows cautious. (Mom, p. 134)

위 예문에서는 대답이 없자 얼굴이 조심스러워졌다는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

므로 'grow'로 번역되었다.

계사동사 'turn'은 외양(appearance)의 변화를 나타낸다(Biber *et al.* 1999: 445). 하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한영병렬자료에서의 '지다'구문과 관련하여 'turn'이 포함된 문장들은 모두 날씨에 예문들이다.

(41) a. 날씨가 차졌구나, 라고 불러주면 너는 날씨가 차가워졌구나, 라고  
      졌다. (엄마, p.22)

b. When she said, "The weather's turned cold." you wrote, The  
      weather has turned cold. (Mom, p. 16)

(42) a.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는데도 그의 얼굴에 땀방울이 묻어났다. (엄  
      마 p. 83)

b. The wind has turned cool, but beads of sweat dot his face.  
      (Mom, p. 76)

여기에서는 색깔의 변화보다는 날씨의 변화를 나타내며 계사동사 'turn'으로 번역되었다.

계사동사 'get'은 주로 사람의 상태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정서적인 혹은 개인적인 의견에 바탕을 둔 입장(affective or attitude stance)을 나타낸다. (Biber *et al.* 1999: 444)

(43) a. 엄마의 뇌 속에 고여 있는 피를 빼냈지만 엄마의 두통은 좀체 나아  
      지지 않았다. (엄마, p. 73)

b. The doctor drained the blood pooled in Mom's brain, but her

headache didn't get better. (Mom, p. 65)

위의 예에서 엄마의 두통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람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계사동사 'get'으로 번역되었다.

아래 예문은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의 의미에서 'get'으로 번역된 것이다.

- (44) a. 균은 힘이 더 세지자 봄철이면 소를 몰고 나가 쟁기질을 했고 추수철이면 어느 일꾼보다도 먼저 논에 나가 벼를 베었다. (엄마, p.184)
- b. When Kyun got stronger, he plowed the fields with the cow in the spring, and harvested rice in the paddies in the fall, before anyone else. (Mom, p. 177)

(44)에서 힘이 세지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쟁기질을 하고 논에 나가 벼를 베는 것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get'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 (45)에서는 화자의 의견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 (45) a. 내가 늙어서 인자 귀도 얇아지고 판단력도 흐려졌는가비여. (엄마, p. 195)
- b. I think my judgment is getting worse because I'm old. (Mom, p. 188)

'I think'로 보아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계사동사 'get'으로 번역되었다.

아래 (46)도 개인의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 (46) a. 사실은 머리가 으깨져버릴 만큼 무거웠거든. (엄마, p. 226)  
b. Actually, the basin was so heavy that my head felt like it would get crushed. (Mom, p. 218)

(46)에서 ‘my head felt like’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느낌으로 ‘get’으로 번역되었다.

다음과 같이 ‘come’으로 번역된 경우는 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Biber *et al.* 1999:445).

- (47) a. 지금은 이리 얼어 있어도 봄이 되면 담장 쪽으로 밀어붙여진 꽃밭 근처가 다시 소란스러워지겠재. (엄마, p. 245)  
b. Although it's frozen now, in the spring the flower garden near the wall will come alive again. (Mom, p. 237)

여기에서 봄이 되면 꽃밭이 소란스러워진다는 겨울이라는 정적인 과정에서 활동적인 봄의 계절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come’으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feel’은 ‘지다’구문에서는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거나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낸다(Biber *et al.* 1999:442).

- (48) a. 너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너는 무기력해지며 그러지요, 라고 대

답했다. (엄마, p. 39)

b. You answered, “Sure”, suddenly feeling powerless. (Mom, p. 32)

예문 (48)에서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행위자의 육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계사동사 ‘feel’로 번역되었다. 아래 예문은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이다.

(49) a. 막막해진 네가 마이크에 대고 내뱉은 첫마디는 무슨 얘기를 해드릴  
까요?였다. (엄마, p. 42)

b. Because you felt stuck, the first thing you said into the mike  
was “What should I talk about?” (Mom, p. 35)

(49)에서도 ‘막막하다’라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  
므로 계사동사 ‘feel’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형용사와 결합하는 ‘지다’구문을 정리하여보면 계사동사  
구문을 제외한 수동구문, 타동사구문,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을 때 모두  
형용사구문이 아닌 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한국어 형용사에 해당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형용사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비슷한  
의미의 동사로 번역되었다. 형용사가 타동사로 옮겨진 경우에는 그 동사의  
특성에 따라 수동구문과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수동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목적어가 사람이었고,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에는 주어가 사람  
이었다. 형용사가 자동사로 된 경우는 그대로 자동사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계사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상태의 변화나 과정’으로 분류되었다. ‘be’계사동사는 ‘상태’의 의미를 강조하  
고, ‘become, grow, turn, get, feel’은 상태의 변화 혹은 과정을 강조할 때

사용되었다. ‘지다’구문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동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사동사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각 계사동사는 미묘한 차이를 두고 각 동사별로 다른 의미로 번역되었다.



## 제 4 장 결론

지금까지 한영 병렬자료에서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되는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어 ‘지다’구문과 그에 상응하는 영어구문이 서로 다른 영역을 부호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분석하였다.

‘지다’구문이 수동의 기능을 부호화한 경우는 타동사+지다, 자동사+지다, 형용사+지다 모두 다 영어의 수동구문으로 번역되었다. ‘지다’구문이 ‘비의도성’, ‘감정이입 비초점화’, ‘비자동화과정’, ‘기동성’의 의미를 부호화할 때는 주제성의 원리에 따라 행위자가 주어인 타동사구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의도성’과 참여자의 주제성으로 인해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기동성’은 각각의 문장에서의 의미에 따라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be, become, grow, turn, get, come, feel’의 계사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be’계사동사는 ‘상태’의 의미를 강조했지만 나머지 동사는 대부분 ‘상태의 변화 혹은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지다’구문과 영어번역문은 ‘수동’의 기능은 양 언어에 다 존재하지만, ‘비의도성, 감정이입 비초점화, 통제성 비초점화, 기동성’은 부호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번역된다. 이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정확한 영작표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했던 한국어와 영어의 기능적 공통점은 담화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수동’이라는 담화 화용적 기능은 두 언어에 존재한다. 차이점은 ‘비의도성, 감정이입 비초점화, 통제성 비초점화’와 같은 행위자성 비초점화하는 기능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동성’의 기능은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이지만 영어에서는 동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다’구문이 영어로 번역될 때 나타

나는 기능을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자료와 글을 이용해서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 즉, 더 정확한 분석과 결과를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병렬언어자료

신경숙. 2008. 엄마를 부탁해 서울: (주) 창비.

Chi-Young Kim. (역) 2011. Please Look After Mom. New York :  
Random House, Inc.



## 참고문헌

- 김은일. 2002. 기능문법과 영어 교육. 「현대문법연구」 27, 105-21.
- 김은일. 2005. 수동구문의 기능과 부호화 차이: 한영 병렬언어자료의 분석. 「현대문법연구」 41, 89-110.
- 김은일. 2007. '지다'구문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기능문법적 분석. 「언어과학」 14(2), 23-42.
- 김은일. 2010. 「부호화 체계와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은일, 정연창. 2006. 한국어 '-게 되다'구문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기능문법적 분석. 「새한영어영문학」 48(1), 159-180.
- 서정수. 1996. 「국어문법」(수정증보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우인혜. 1993. 용언 '지다'의 의미와 기본기능. 「말」 17, 39-67.
- 이기동. 1978. 조동사'지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1, 537-569.
- 이영옥. 2000. 한국어와 영어 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 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6-76.
- 이익섭, 이상익, 채완. 1997 「한국의 언어」 서울: 신구문화사.
- 조인정. 2005. 영한번역의 문제점: 수동태를 중심으로. 「번역연구」 6(1), 121-142.
- 최현배. 1961. 「우리말본」(세 번째 고침). 서울: 정음문화사.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al-Based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Company.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역). 2002. 「기능영문법 I & II. 」 서울 : 박이정).
-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ornby, A. S. 1980.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 on Japanese Culture*, 285-326.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im, E. 1992. *Voice in Korean*. Seoul: Hanshin Publishing Co.

